

찬란한 옥과같이 잘리고 잘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慶南中同窓會報

발행·편집인: 안강태
발행처: 경남중고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 (051)245-7551 ~ 3 · FAX: 245-7550
인쇄처: (주)중앙인쇄
Tel: (051)636-9477 · FAX: 636-9478

제43차 정기총회... 안강태 회장 재신임 본부 제30대 집행부 출범

예결안 원안 통과 · 정행권 한동대(24회) 등 7명 공로패

지난 3월 29일 열린 본부동창회 제43차 정기총회는 300여명이 참석, 안강태 회장을 재신임, 제3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영주동 코모도호텔 총무실에서 안강태 회장(11회 · 대선조선 대표이사) 주재로 열린 총회는 교가 제창에 이어 결산보고와 예산안 승인, 임원 개선 등 순으로 진행됐다(사회 황유명 총무 · 29회).

안 회장은 앞서 유공자표창에서 제28대 본부회장을 역임한 정행권 고문(9회 · 협성운수 회장) 등 7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수상자 명단 별도 참조).

총회는 2005년 결산보고에서 △본부 운영(규모 1억 6,200만원) △회보 운영(규모 3,163만원) △용마의 밤(규모 4,792만원) 등과 2006년 예산안에서 △본부 운영(2억 526만원) △회보 운영(규모 4,871만원) 등을 승인했다.

이어 임원개선에서 안강태 회장을 이사회가 의결한 추대안대로 제3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안강태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재신임을 해준 데 대하여 감사하며 다시 한 번 무거운 짐을 지

게 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용마의 인연을 소중하게 이어가기 위해 서로 사랑하고 믿으며,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보듬어 안는 자중자애의 정신으로 모두 등치자"고 말했다.

총회는 이어 감사 선출에서 회장을 재신임한 만큼 현 집행부 임원(자문위원 · 감사 · 부회장 전 원)을 유임하기로 의결했다.

안 신임회장은 이에 따라 박수숙에 감사단 유임을 선포했고 부회장 경우 보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회선언에 이어 소개된 동문은

다음과 같다. 김근준(1회) 정소영(6회) 박동열(8회) 정행권(9회) 고분, 김병기(11회) 오완수(11회) 현정춘(11회) 자문위원, 박병선(14회) 손부흥(15회) 권철현(19회) 남진현(19회) 박재상(22회) 박흥조(22회) 김두전(26회) 박상호(26회) 김대욱(29회) 부회장, 방봉우(10회) 감사, 권명미 경남고 교장, 오기돈(21회) 전 해양수산부 장관, 하영수(17회) 용마신악회장 · 정형근(19회) 테니스회장 · 김경진(27회) 경총회장, 김경희(9회) 재경고문과 민신용(16회) 사무국장, 마산창원회 김관(14회) 자문위원과 정상국(29회) 사무국장, 울산회 박흥조(22회) 회장과 서정



본부 제43차 정기총회에서 재신임 의결에 따라 제30대 회장에 선임된 안강태 회장

욱(15회) 감사, 김병화 전남지역회 사무국장(35회).

한편 축하화환은 부산시내 중고재경동창회협의회(회장 김경희 · 재경고문) · 개성고(옛 부산상고)동창회(회장 양원석) · 동래고동창회(회장 김해성) · 동아고동창회(회장 이명근) · 부경고(옛 경남상고)동창회(회장 김규현) · 국회의원 박희태 동문(11회 · 한나라당 부총재) 등, 축전은 국회의원인 김기춘(12회), 남해군수 하영제 동문(27회) 등이 보내왔다.

안강태 회장 재추대 본부동창회 올해 첫 이사회

지난 2월 27일 열린 본부동창회 올해 첫 이사회는 '05 결산보고와 '06 예산안을 승인한 후 제30대 회장에 안강태(11회 · 대선주조 대표이사) 현 회장을 재추대키로 의결했다. 이날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영주동 코모도호텔 회락정에서 안강태 회장 주재로 열린 이사회는 이 밖에 본부 주최 기별대행 각종 대회와 '용마의 밤' 축제 등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29일 저녁 부산 코모도호텔 총무실에서 열린 본부동창회 제43차 정기총회.

장학기금 확충방안 마련키로

본부 용마장학회, 예결안 승인

본부 용마장학회는 지난 2월 7일 오후 6시30분 부산 동구 범일동 대어초발 연회실에서 올해 첫

이사회를 열어 결산보고(규모 8,227만원)와 예산안(규모 8,029만원)을 승인했다.

안강태 이사장(11회 · 본부회장 · 대선조선 대표이사) 이 주재

한 이날 이사회는 장학재단 기본재산 16억 2,800만 원의 이자수입으로 운용되는 목적사업비 중 야구부 관련 지원(감독 · 코치 급여 등)이 88%, 모교 재학생 학업장학금이 12%를 차지하는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사회는 이에 따라 학력증진 방안과 실질적인 야구부 지원을 위하여 △우수학생 육성 및 우수교사 유치 방안 △장학기금 확대 방안 등을 마련, 전 동문들의 공감대 확산을 도출함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주) 씨티디벨로핑

So... Pleasure

함께하는 풍요로운 미래

당신의 행복한 미래를 생각합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가치창조.
언제나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주)씨티디벨로핑은 도전 · 정직 · 성실을 바탕으로
행복하고 쾌적한 주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언제나 앞장서고 있습니다.

부산시 정비업체 등록 제27호

**재개발 · 재건축 정비사업은
(주)씨티디벨로핑이 함께 합니다.**

사업추진

재개발사업 초읍 2구역 · 문현 5구역 · 화명 1구역 · 재송 2구역
재건축사업 덕천 2구역 · 반여 3구역 · 대연 2구역 · 재송 5구역

덕천2 재건축
반여3 재건축
문현5 재개발
초읍2 재개발

(주) 씨티디벨로핑
대표이사 **윤성국** (83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 4동 1060-17
Tel. (051)802-8385(대표) | Fax. (051)802-8386

국내외 용마가족 여러분. 약동의 계절 봄을 맞아 더 한층 원기왕성하십시오.

저는 지난 3월 29일 열린 본부동창회 제 43차 정기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아 제 30대 집행부를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 놓는다는 것이 오히려 몹시 버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격려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무한한 책임감과 함께 재충전의 불씨를 지피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는 앞으로 맡겨진 임기 중에 다음의 과제들에 대해 분골쇄신의 집념을 불태우고자 합니다.

먼저 <모교60년사> 편찬사업은 본부와 재경동창회가 잘 조율하여 앞장서서 여건을 조성시킨다면 숙원을 푸는 데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특히 마무리하는 시간대가 다음 집행부까지 이어질 때는 비록 저가 2선으로 물러나 있다고 하더라도 물심양면 적극 성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부는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의 계획안을 마련했던 터입니다. 태스크포스팀을,

취임사

안강태

제11회·본부동창회 회장·대선조선(주) 대표이사

자중자에 속 도약깃발 드높이자

쉽게 말해 편찬준비를 위한 추진단은 골격을 갖춘 상태이나 여건이 뒤따르지 않아 공식발표를 유보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본부는 각종 행사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사무국의 홈페이지 업데이트회를 비롯하여 제반 문제들을 개선하고 효율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강한 집행부, 열린 집행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교 육성방안도 연구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는 장학사업의 내실화에 골몰하고 있는 줄도 압니다. 본부

경우 진학지도후원을 제도화하여 우수교사 유치와 인재 육성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현재 장학사업은 기금이자수입의 열악성 때문에 학력증진과 야구증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장학기금의 새로운 조성방안이 요청되는 시점에서 서 있음을 공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30대 집행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활력 넘치게 추진하려면 용마가족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합의를 도출해주셔야 합니다.

첫째,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일체감 조성
성과 늘봄같이 번지는 지원을 통한 경쟁력강화입니다. 이는 역량결집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신적 통합을 통한 공감대 확산입니다. 우리는 용마정신의 영원한 구현을 위해 신명을 바치고 있는 동창회의 희망이자 구심체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가치기준을 초월함으로써 성장통을 극복해 나가는 미덕과 용기를 끊임없이 충전해 나갑시다.

셋째, 용마의 인연을 소중하게 이어가기 위해 서로 사랑하고 믿으며,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칭찬하며, 서로 보듬어 안고 격려하는 자중자에의 길을 변함없이 넓혀 나가도록 노력합니다. 아집과 편견은 화합과 결속의 저해요인임을 잊지 맙시다.

선·후배 용마가족 여러분. 재신임을 받은 집행부가 새로운 지평을 활짝 열 수 있게끔 전폭적인 지지와 배전의 성원을 쏟아주시기를 호소합니다.

항상 건승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재경 '06 정기총회-신년회

박종구 고문(5회) 등 6명에 '명예로운 용마상' 수여

지난 2월 22일 재경동창회 2006년 정기총회 겸 신년교례회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홀에서 열렸다.

지난해 11월 23일 정기총회에서 '두 행사를 동시에 개최한다'는 개정 회칙(제 10조 2항)에 따른 첫 축제이다.

이날 오후 7시 홍용찬 회장(16회·우성해운 대표이사) 주재로 열린 행사는 정동식 명예회장(1회)과 한준석(3회) 문택상(4회) 박영식(7회) 김경희(9회) 김성규(11회) 이규만(12회) 신준호(14회) 천신일(15회) 고문, 최석원(6회) 배중현(7회) 김동훈(8회) 서해량(9회) 김종의(13회) 등 각 동기회 회장·총무를 비롯해 동문 25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민신용 사무국장·16회).

홍용찬 회장은 제1부 정기총회에서 배재욱 수석부회장(17회)의 개회사에 이은 인사말을 통해 "선배들이 세운 전통을 잇는다는 사명감으로 동창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오거돈(21회) 해수부 장관과 한준석 고문 축사, 용마상 시상, 신년교례회 순으로 진행됐다.

홍 회장은 유공동문 표창에서 장학재단의 별실된 기본자산 6억원 보원에 힘쓴 박종구 동문(5회) 등 6명에게 신선했던 '명예로운 용마상'(총전의 대상)을, 이현영 동문(14회) 등 17명에게 '자랑스런 용마상'을, 천신일 직전회장과

박호문 사무국장(15회)에게 감사패를, 오봉석(15회) 골프회장 등 6명에게 공로상을 각각 수여했다(부분별 명단 별표 참조).

제2부 신년교례회는 성 빈 동문(49회·인천지검 검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식사와 정담을 즐기는 가운데 진행된 교례회는 광주에서 상경한 김옥란 여사의 국악한마당 등으로 흥을 돋웠고 제 45회~51회 동문들로 구성된 야구동호회 '스틸러스' 회원들의 합창과 응원 구호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교가제창(김경희 고문 지휘)을 끝으로 오후 9시 15분 폐회했다.



재경동창회 2006년 정기총회에서 홍용찬 회장(16회·맨 오른쪽)으로부터 '명예로운 용마상'을 받은 동문(6명)을 대표하여 윤승훈 동문(14회·맨 왼쪽)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가운데는 천신일(15회) 직전 회장.

재경동창회 2006년 정기총회 수상 동문

구분	성명	회	직책	공적 내용
명예로운 용마상 (6명)	박종구	5	(주)삼구통상 회장	장학재단 자산 6억원 조성 기여
	윤승훈	14	(주)지에프 회장	.
	천신일	15	(주)세중 회장	.
	구본능	21	희성그룹 회장	.
	허청수	21	GS그룹 회장	.
	변용준	24	(주)한성전자 대표이사	.
자랑스런 용마상 (17명)	문원경	22	소방방재청장	정부 부처 차관급 승진
	이주성	22	국세청장	.
	허병도	22	산자부 차관보	.
	문창진	25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장호남	17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술 개발
	장기주	26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국가석학 11인'에 선정
	김도형	26	연세대 사학과 교수	역사연구 공로 국무총리표창 수상
	김승대	29	부산대 법대 교수	관습헌법 등 헌법 연구에 기여
	김수민	26	법무부 보호국장	두각 나타내고 있는 법조인
	서기석	26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박시환	26	대법관	.
	안종택	27	법무부 검찰관	.
	박종영	16	(주)태영 대표이사 사장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송태남	16	전 KCC울산공장장	.
	여성국	17	대우버스(주) 대표이사	.
	이현영	14	세영정형외과의원장	사회 봉사에 헌신
	김재열	19	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
감사패 (2명)	천신일	15	(주)세중 회장	2년간 회장으로 헌신
	박호문	15	전 사무국장	조직 활성화에 헌신
공로상 (6명)	오봉석	15	골프회 회장	동호회 발전 위해 헌신
	강형작	17	기우회 회장	.
	임장주	19	산악회 회장	.
	윤우성	20	테니스회 회장	.
	구준옥	23	산악회 산행대장	.
	이범익	29	장학재단·골프회 총무	.

졸업50주년 기념문집 준비

경구회 올해 첫 회장단회의

쌍팔회에서 경구회(慶九會)로 약칭이 바뀐 제9회 재경동기회는 '06사업 및 행사컨셉을 마련,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서해량 회장은 지난 2월 11일 오후 5시 서울 을지로 동기회 사무실에서 올해 첫 회장단 회의를 주재하고 △회원명부(사진 컬러-주관 김기관 총무) △졸업 50주년 기념문집 발간(편집위원

장 김경희 부회장·위원 박만철 감사-추후 부산동기회 포함 5명 더 추가) △화합과 결속을 위한 취미클럽·야유회·송년잔치 등 추진(주관 이환원 부회장) △경구회 소식지 격월제 발행(주관 서해량 회장) △총무 교통비 월 20만원 지급 등 주요의제를 통과시켰다. 특히 화합과 결속을 확산시키기 위해 등산대회는 매월 둘째 일요일에, 바둑 대국은 매

주 토요일 을지로 동기회 사무실에서, 단합대회는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시 동기회 사무실에서 열기로 했다(회식비 전액 회장 부담). 한편 경구회 사랑방인 무궁화카페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유하기로 했다.

무궁화카페에 참여하면 컴맹에서 탈출함과 동시 치매를 예방하고 인터넷을 통해 생활정보를 다양하게 입수하며, 카페에 글을 올려 유익한 정보교환과 함께 우정을 꽃피우게 된다.

경구회 신임회장 서해량



경구회는 앞서 구립 8일 오후 6시 동기회 사무실에서 허남수 회장 주재로 정기총회를 열어 제40대 회장에 서해량 동문(서해량세무회계사 사무소 대표·제4대 회장 역임·사진)을, 부회장에 이환원·김경희 동문을, 감사에 박만철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김기관 총무는 유임됐다. 김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총

회에는 22명이 참석, 회장 인사에 이어 경과보고와 결산안을 통과시킨 후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서해량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원 간 의의증진과 상부상조하는 경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흠뻑미팅데이 행사와 모교 교훈비 건립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허완구 동문에게 전 동문의 이름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일행은 총회 후 늘봄가든에서 송년잔치를 즐겼다.

연내 팔공산 · 소백산 · 천성산 등정

본부 용마산악회 계획...제25차 산행 141명 백운산 올라

본부 용마산악회 제25차 정기 산행대회(올해 첫 번째)가 지난 3월 12일 전남 광양시 근교 백운산 억불봉(962m)에서 하영수 회장의 봉솔로 펼쳐졌다.

이날 오전 8시 부산진역 앞을 출발한 141명(동부 121명 · 가족 20명)의 용마가족은 오전 10시 30분 산행들머리 광양제철연수원 운동장에서 장비점검을 받은

후 발품을 팔기 시작했다. 신남석 산행대장(21회)의 뒤를 따른 일행은 노랭이재(11:00~11:10)-억불봉 삼거리(11:25-우측으로 들어가 정상에 이름)-삼거리 옆 억새밭에서 점심식사(11:25~12:25)-억불봉 정상(13:00~13:20)-석굴-억불봉 동남릉으로 하산(13:30)-입방골 입도 따라 하이커마을(15:30)-

수어호 비촌마을(16:00~16:40)로 내려와 산행을 마무리했다. 일행은 이날 밤 10시 30분 부산진역 앞에서 해단식을 치렀다. 한편 용마산악회 제26차 정기 산행은 오는 6월 11일 대구 근교 팔공산에서, 제27차는 9월 10일 소백산 도솔봉에서, 제28차는 11월 12일 경남 양산 근교 천성산에서 각각 치른다. 천성산에서 올해 산행대회 성적을 발표, 시상한다.

봄기운 마시며 노익장 과시 재경 경팔회 각 친목회

재경 경팔회(회장 김동훈) 3개 친목회가 봄기운에 흠뻑 젖었다. 팔선회(회장 이유환)는 4월 21일 오후 2시 한일기원에서 월례대국을 펼쳤다.

앞서 지난 3월 중 활동역시 노익장을 과시했다. 팔선회는 17일 오후 2시 한일기원에서 월례회를 열어 우승 김정곤 · 준우승 배주원 · 감투상 최대명 동문이 차지했다.

잔디회(회장 배주원)는 20일 기흥CC에서 제145차 월례회(16명 참가)를 열어 남자부는 우승 이유환 · 준우승 윤태영 · 3등 이양희 · 니어리스트상 김영길 · 흥운상 김세곤 동문이, 여자부는 니어리스트상 이정자씨가 차지했다.

산우회(회장 김영철)는 10일 15명이 관악산을, 3월에는 15명이 수락산을 등정했다. 한편 17일 북한산(13명)에, 24일에는 도봉산(14명)에, 31일에는 수락산(17명)에 각각 올랐다.

경연회 각 클럽 원기왕성

경연회(회장 정인호) 각 클럽이 4월을 맞아 활기왕성한 활동을 펴고 있다. 분당회(회장 김연수) 15일 오후 6시 서현역 앞 기왓길

순두부에서, 산본회(회장 윤영태)는 11일 오후 12시 30분 신본역 앞 사시미집남매에서, 강북회(회장 강재환)는 4일 오후 12시 30분 쉼터에서 술잔을 나눴다. 사니조아(회장 이계창)는 8일 모락산을 올랐고 16일 대모산 · 구룡산에 도전한다. 동수회(회장 김영덕)는 4일 자스민기원에서 강북회 모임이 끝나자마자 만나

정답을 나눴다. 정우회(회장 정상수)는 20일 오전 11시 평촌 중앙공원 테니스장에서, 경록회(회장 이정배)는 27일 정오 자우CC에서 각각 기량을 겨룬다. 일금회(회장 손정)는 21일 오후 6시 일산 주엽역 앞 마라도에서, 강남회(회장 김해룡)는 25일 오후 12시 30분 교대역 앞 기왓길순두부에서 각각 정답을 나눴다.



2006년 경연회를 이끌어 나갈 회장단과 이사를. 뒤쪽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병철 총무부회장 · 윤영태 산본회장 · 이정배 경록회장 · 정상수 정우회장 · 앞줄 왼쪽부터 김해룡 강남회장 · 조경만 수석부회장 · 정인호 경연회장 · 김시열 98년 회장 · 손 정 감사 겸 일금회장

졸업50돌 홈커밍추진위 곧 구성

경연회 올해 첫 회장단 회의 · 이사회 열어

경연회(제10회재경동기회)는 지난 1월 19일 서울 서초동 민속관에서 신입회장단 상견례를 겸한 올해 첫 이사회를 개최했다.

정인호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06 예산안을 심의하고 졸업50주년 행사를 위한 추진위원

회 구성을 논의한 후 정기총회를 12월 11일 양재동 스포타임에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손 정 일금회장을 감사로 선임했고, 이병철 부회장을 신입총무로 겸직시켰다.

두들 숙연해졌다. 사회자가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취미클럽 대항 닭싸움대회와 년센스퀴즈로 웃음꽃을 피웠고, 부인들도 참여한 노래자랑대회는 '숨은 끼'의 경연장이 됐다. 행사는 오후 9시 30분 고가제창(한봉수 동문 선행)을 끝으로 폐회했다.

이날 행사를 빛내기 위해 협찬한 동문은 다음과 같다. ▲성금 ▷이상철(회장)=200만원 ▷김취부 강영주 박종영 송태남 이영재=각 30만원 ▷김용환 김한수 손석식 설희순 안인환 양휘부 이훈민 정일성 허종욱=각 20만원 ▲▷일반회비=137만원 ▲성품 ▷이정원=가방 10개(30만원 상당) 이훈민=영상 제작 지원 ▷전정숙=10만원 상품권 3장 ▷한봉수=화장품 1세트(30만원 상당) ▷홍용찬=타일 80장 · 정중 8병.

"안인환 · 민홍식 리말리아 청복 다큐 방영에 감동 닭싸움 · 노래자랑 대회 · 년센스 퀴즈로 웃음꽃 활짝"

했다. 특히 두 동문이 감동과 욕인이 돌아오는 정상에서 '일육산우회' 플래카드를 양쪽에서 잡고 있는 능률한 모습과 '인간승리'의 체험담을 들려주었을 때는 모

“청춘도 사랑도 아직은...”

재경 일육회 흥겨운 신년회에서 '숨은 끼' 발산

제16회 재경동기회 신년회가 지난 2월 16일 오후 6시 서울 도곡동 군인공제회관 3층 밀레니엄 웨딩홀에서 열렸다.

이상철 회장 주재로 열린 총회에는 동문과 부인 등 77명이 참석했다.

제1부 기념식은 회장 인사말 · 재경동창회장인 홍용찬 동문 격려사 · 민선웅 직전회장 감사장 수여 · 오랜만에 참석한 동문 소개 · 취미클럽 회장들 새해 계획안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다(사회 손재봉 총무).

제2부 여흥한마당은 오후 7시 30분 신현호 동문 사회로 개막됐다. 우렁찬 광파르에 이어 먼저

안인환 · 민홍식 동문이 같은 달 2일부터 22일 동안 히말리아 5,540m 등반 쾌거의 다큐멘터리를 30분간 방영하자 감동이 밀결

진 단



김선동

제10회 회장 · 부산시교육위원

지난 3월 2일 경남고 제63회 입학식에 참석, 축하를 하고 교가를 불렀다.

교정에는 교훈탑(제9회 졸업 50주년 기념)를 비롯해 용마상(제14회), 고래상(제17회) 등이 제6·8·10·11회가 심어놓은 졸업기념 나무들과 어우러져 위용을 떨치고 있었다.

학사보고에 따르면, 재대기는 312명(10학년)이고 올 60회까지 졸업생수는 총 29,383명 올해 진학 현황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12명을 포함해 서울지역 42명, 부산대 60명을 비롯해 부산지역 285명 등으로 93%의 진학률을 올렸다.

하지만 한때 서울대만 130여 명이 들어갔던 때를 생각하면 당시의 선배들로서는 매우 불만스러우리라. 그러나 시대의 변천을 어찌하랴!

한때 모교를 신흥개발지역으로 옮겨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을 말하는 동문들도 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수용계획에 맞추어 학교 신설 또는 이전을 검토할 수 있으나, 특정인이나 동창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공립학교는 재산소유권이 국가이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 시내 인문계 고교는 90곳(공립 44곳 · 사립 46곳)이다. 20년 전보다 학교는 2배, 학생수는 약 1.6배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단위학교 규모는 작아진 셈이다. 따라서 서울대 10명 이상 합격하는 경우는 자립형 사립고(부산 1곳 · 학교가 학생 선발) 말고는, 매년 하나밖에 없는 실정이라 하니 경남고

‘비상의 날’ 위해 결집을

의 진학률은 사람은 지금 위치에서 보면 아주 좋은 편이다.

고교평준화 33년,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먼저 부산의 역세권 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대화된 자갈치시장이 곧 문을 열고 옛 부산시청 자리의 롯데월드가 오픈하면 중 · 서구 옛 도심이 살아날 것이다. 이는 낙동강을 낀 강서의 녹산산업공단, 김해 장유의 물류유통단지도 이어진다. 특히 부산신항이 본격 운영되면 서부산권이 도약을 거듭하게 될 전망이다.

다음은 실패로 끝난 고교평준화 정책의 변화이다. 현재 교육부는 시대적 요청인 평준화 보완적으로 자립형 사립고 확충과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한 선지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국회는 학군의 광역화와 자율형 공립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정책적 영향력을 가진 동문들의 뜻을 모아줄 것을, 앞서 이재호(제21회동기회) 변호사가 역설한 바 있다(호보 제358호 참고). 그리고 공립 자율학교 체제 전환 등을 통한 대처 방안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낙동정맥 끝자락인 구덕산 기슭에 터를 잡은 모교의 형국이 ‘비상의 날을 기다리는 용마의 형상과 닮았다’고 보는 이 명당 자리에서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랜’ 에너지를 집결시킬 때가 다가왔다.

5월 중 가족동반 야유회 등대회, 신년회 · 간사회

본부 등대회는 회장단 및 집행부 신년회를 지난 1월 22일 남천동 초원복극에서 가졌다.

최원종 회장(21회 · 한국허치슨터미널 사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선임 임원들을 비롯해 안경환(19회 · 부산신항만공사 사장), 추준석(20회 · 부산항만공사 사장) 이인수(28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동문 등 20여 명이 참석해 본부 동창회와 등대회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한편 지난 3월 14일 대한봉운위원회에서 열린 3월 간사회는 5월 가족동반 야유회 계획안을 검토했다.

바로 잡습니다

본보 제358호(2006.1.31) 3면 “제9회서 세운 모교 교훈비...” 제목의 기사 중 제9회재경동기회 회장은 교훈비 기공식 당시에는 허남수 동문이었으나 제작식 때는 신임 서해량(서해량 세무회 계사무소 대표) 동문이 참석하였기에 바로 잡습니다.

조창범 (18회)
주 오스타리아 대사 발탁
전재만 (28회)
주 광저우 총영사 영진



외교관인 조창범 (18회·사진 위)·전재만 동문 (28회·사진 아래)은 각각 주 호주대사와 광저우 총영사로 영진했다. 조 동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지난 1972년 외무고시에 합격, 외교통상부에서 외교관의 길을 걸었다. 방글라데시·오스트리아·캐나다 등에서 서기관과 참사관, 주 체코·주 오스트리아 대사를 역임했다. 전 동문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제13회 외무고시에 합격, 외교통상부에서 주 홍콩영사·청와대 외교비서실 행정관·주 일본대사관 등 서기관·주 중국대사관 참사관·외교통상부 기획심의관 등을 거쳤다.

이종찬 (20회)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박영하 (25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종택 (27회) **법무부 검찰관**
조한욱 (29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청장**

최근 단행된 대법원·법무부 인사에서 판사 동문 7명과 검사 동문 5명이 영진했다.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종찬 동문



김정학 동문



서기석 동문



박태일 동문

■ **대법원 인사**

△ **이종찬** (20회) =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춘천지법원장> △ **김정학** (25회) = 수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 **박영하** (25회)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서기석** (26회) = 서울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 **박준민** (39회) = 서울중앙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 **김형훈** (40회) = 서울중앙지법 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 **박태일** (46회) = 창원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안종택 동문



문규상 동문



이춘성 동문



조한욱 동문

■ **법무부 인사**

△ **안종택** (27회) = 법무부 검찰관 <춘천지검장> △ **문규상** (27회) = 대전고검 검사 <수원지검 형사2부장> △ **이춘성** (28회) = 서울

동부지검 차장검사 <수원지검 차장검사> △ **김인호** (28회) = 광주고검 검사 <대구고검 검사> △ **조한욱** (29회) =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서울고검 검사>

재경 7회 배중현 회장 유임

제7회 재경동기회는 지난 3월 2일 정오 건국대 앞 개성특은지에서 2006년 정기총회를 개최, 배중현 회장을 세 번째 연임시켰다. 40여 명이 참석한 총회는 김해선 남흥우 박동순 박선호 이창범 전 대사에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이어 부회장에 이종욱 배병우 변수근 최인호 동문을 선임했고 조덕창 감사를 유임시켰다.

제11회 신임회장 이명



제11회 동기회 '06정기총회가 지난 2월 23일 오후 6시 민락동 해촌에서 4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현정춘 회장의 인사말과 김원형 총무의 경과보고에 이어 결산보고를 승인한 후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회장에 이명(만용아동교육복지사업후원회장·사진) 동문을 선임하였다.

제13회 신임회장 오한수



제13회 동기회는 지난 1월 24일 오후 6시 30분 서대신동 산정에서 53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었다. 차영일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2005년도 결산보고를 승인하고 오한수(삼정사 대표·사진)를 신임 회장으로 뽑았다.

발전방향 모색

제14회 회장·고문단 회의

제14회 동기회(회장 김용호) 회장단회의가 지난 2월 27일 오후 6시 30분 중구 중앙동 일력초박에서 열려 동기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은 유정호 부회장이 스폰서를 했다(9명 참석). 앞서 21일 오후 6시 30분 중앙동 어촌에서 이종민 고문 주최로

고문단회의가 열려 동기회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김경일 일오회장 재신임 자문위원회 연석회의 열어



제15회 동기회 김경일 회장(정공산업 대표이사·사진)이 지난 2월 13일 저녁 장준방에서 열린 일오회 자문위원회의 '재신임'의결에 따라 동기회를 1년간 더 맡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제17회 박인사 회장 유임



제17회 동기회는 구랍 2일 오후 6시 30분 해운대 미포거북선횃집에서 '05 정기총회를 열어 박인사 회장(박인사신부인

중국 산동회 정례회 개최

중국 산동지역동창회는 지난 2월 24일 오후 정례회를 열어 2006년 행사계획안과 각종 지능회 결성 등을 의결하였다. 한종엽 회장(17회)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8명이 참석, 정기회를 매월 둘째 금요일에 열기로 했다. 골프회·등산회 결성보고에 이어 향후 테니스회·낚시회·골프회·당구회 등도 빠른 시일내 결성하기로 하여 중국지역동창회 활성화 및 저변 확대는 산동지역회가 앞장서기로 하였다. △고문=김극기(17회) △회장=한종엽(17회) △부회장=윤봉태(20회) △감사=김석태(26회) △총무=신용도(27회) △부총무=백현철(32회·골프) 김용현(33회·등영지회)

동기회 · 지역회 · 직능회

대구지역 회장 허규판 (20회)



대구지역동창회는 구랍 16일 정기총회를 열어 허규판 동문(20회·삼성산업 회장·사진)을 신임회장으로 뽑았다. 허경표(16회)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부부동반 40여 명이 참석, 예결안을 통과시키고 임원을 개선했다. 한편 정기 모임은 짝수달 셋째 주 목요일에 열기로 의결했다. △회장=허규판(20회) △부회장=정다출(22회·경상병원 병원장), 양준영(26회·대경생약 대표) △총무=김종호(31회·김종호한의원장·연락:053-765-8875)

과원장·사진)을 유임시켰다. 부부동반 100여 명이 모인 이날 총회는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임원을 개선했다.

제18회 신임회장 천두갑



제18회 동기회는 지난 2월 27일 오후 6시 부산진구 부전동 동기회관(유원O/T 1913호)에서 2006년 정기총회를 열어 천두갑 동문(유니코상사 대표·사진)을 신임회장으로 뽑았다. 김사권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동문 40여 명이 참석, 회무보고에 이어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했다. 총회는 김사권 직전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회장=천두갑 △부회장=김만근 김용대 김종금 김철용 박도형 서부원 임영섭 최강등홍우재 △총무=오수명 육병규장수일

제21회 이재호 회장 재신임

제21회 동기회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석회한정식에서 이재호회

용마산악회

2006년 정기산행 일정

임원	
명예회장	한동대 (9회·한동대신경정신과의원)
	제병민 (13회·동신개발 대표)
	정준수 (15회·부산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부)
회장	하영수 (17회·한국치공구 대표)
수석부회장	정영천 (21회·정영천 법률사무소)
부회장	김성재 (22회·성일기업)
	박수갑 (23회·부산 노무사사무소)
산행대장	신남석 (21회·문경약돌돼지 대표)
산행부대장	오기목 (23회)
총무이사	서민석 (30회·서민석 세무회계사무소)
부총무	김법영 (33회·김&정 신경외과)
감사	이창흠 (19회·가나다라 대표)

- 1차 / 3월12일 백운산 억불봉
- 2차 / 6월11일 대구 팔공산
- 3차 / 9월10일 소백산 도솔봉
- 4차 / 11월12일 양산 천성산

* 각 기별 산악회 연회비 : 10만원

부산은행 : 102-01-009347-6 용마산악회

* 홈페이지 : www.yongma.org

주관 용마산악회





장(본부회장· 변호사·사진) 주재로 '06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는 2005년 결산인과

2006년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올해 졸업 40주년 기념 '홀커밍데이' 행사 등에 대비해 현 집행부를 전원 유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앞서 2월21일 고문·회장 단회의에서 수석부회장에 이강남 동문(변호사)을, 총무에 권오균 회교구 동문을 유임시키기로 의결했다.

전남지역동창회 정기총회



지난 2월 25일 전남지역동창회 정기총회가 지리산 쌍계사 계곡 팔모정에서 열렸다.

박정근 회장(21회·동부계전



오후 7시 중앙동 대한봉운빌딩 뷔페파크에서 2006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전영조 회장

(사진)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결산안과 2006년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임원개선을 통해 감사에 이병찬 동문을 선임했다. 이어 박문회 직전회장에 공로패를 수여했고 정갑윤(국회의원) 장수만(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 박기욱(부산시의원) 동문이 축사를 했다.

6월 대마도 원정등반 확인 제28동기회 정기총회 열어



제28회동기회는 지난 3월14일 사직동 벚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이 사회를 통과한 결



사 2006년 정기총회를 열어 김용식 동문(세인치과원장·사진)을 신입회장으로 선출

했다. 김대욱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40여 명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임원개선을 통해 회장을 뽑고 직능별 부회장제도를 도입하여 공직·교수·사업·의약회 등 각 약간 명의 부회장을 선임키로 했다. 총무는 김영훈 동문(초하한의원장)이 맡았다.

제31회 신입회장 정정남



제31회동기회는 지난 1월17일 연산동 해암뷔페에서 남철우 회장 주재로 2006년

정기총회를 열어 신입회장에 정정남 수석부회장(동아대 생물학과 교수·사진), 감사에 안기수, 총무에 김옥은·홍성수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제33회 회장 이윤조 선임

제33회동기회는 지난 3월 8일 오후 7시 부전동 대림뷔페에서 이윤조 동문(세화약품 소장)의 주재로(40여 명의 동문 참석) 열린 이날 총회는 집행부 인사, 행사계획안 보고, 예산안 통과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윤조 회장은 이호인 전임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김종만·유희철 동문이 총무를 맡았다.

4월 중 가족동반 아우회 제34회 수석부회장제 도입

제34회동기회는 지난 2월9일 서면 녹산힐집에서 이수형 회장 주재로 2006년 정기총회를 열어 예산안을 승인하고 각 지역회 활성화 화방안을 통과시켰다.

또 수석부회장제를 도입, 이성엽 동문(동명농원 대표)을 초대 수석부회장에 선임했다. 4월 중 가족동반아우회 개최를 의결했다.

이명규(24회) 강원지방경찰청장 영진



이명규 동문(24회·사진)은 지난 2월21일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장에서 강원

지방경찰청으로 영진했다.

이 동문은 건국대 축산학과를 졸업한 후 경찰간부후보생 25기로 경찰에 입문한 이래 부산진경찰서 수사과장·대통령비서실·충천경찰서장·동래경찰서장·서울 수서경찰서장·경찰청 교통안전과장 및 인사과장·강원지방경찰청 차장 등 역임.

문원경(22회) 소방방재청장으로 발탁



문원경 동문(22회·사진)은 행정자치부 제2차관 재임 중 최근 소방방재청장으로

발탁됐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문 동문은 지방행정의 선진화에 주력해 왔고, 공학과 경제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문 동문은 진해시장·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행정자치부 민방위 본부장·제2차관 등을 역임.

문창진(25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발탁



문창진 동문(25회·사진)은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재임 중 최근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 발탁됐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래 보건복지부 공보관·기초생활보장심의관·사회복지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미국 시카고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문 동문은 조직 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추진력이 강하며 업무를 매우 치밀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등산·걷기운동·만남의 날 개최

재경 일육회 클럽별 활동

제16회재경동기회(회장 이상철) 용마가족들이 취미클럽별로 틈나들이 모임을 갖고 훈훈한 회합의 향기를 확산시켰다.

16만남의 날 지난 3월23일 저녁 역삼동 신라식당에서 이철용 동문초청의 '16만남의 날'이 울려 퍼지며 처음으로 열렸다. 이 모임은 지난해 10월부터 중단되었다가 이날 다시 기지개를 폈다.

북한산 시산제 같은 달 5일 16산악회 주관 북한산 산행 및 시산제가 부부동반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일행은 시산제에서 북한산 산신령께 병술년 한 해의 무사산행과 친복·좌경세력의 퇴치를 기원했다. 하산 후 정일성 동문이 배운 생크루파티로 해단식을 대신했다.

3·1절 걷기운동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인 이상진 동문이 주관한 3·1절 걷기운동이 국경일 당일 동문·부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극장~안중근 의사 동상 코스(6km)에서 열렸다. 일행은 걷기운동을 하면서 "북한 동포에게 해방을!" 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용산회 시산제 참가 지난 2월 26일 충남 영인산에서 열린 재경동창회(회장 홍용천·16회) 용마산악회 주관 시산제에 동문·부인 등 23명이 참가해 회장으로서의 저력을 과시했다.

'역량 결집' 위해 총력전

대표·사진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고로쇠약수 마시기 모임을 겸했다. 이날 이길상 동문(6회 회장)은 고로쇠약수를 제공하고 별장을 공개했다.

제22회 회장 조순태 선임



제22회동기회는 지난 3월24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부평동 구포집에서 조순태 회장(사

진) 주재로 2006년도 첫 이사회를 가졌다.

조 회장은 새로 구성된 집행부를 중심으로 항상 즐겁고, 자주 만나고 싶어하는 조직으로 동기회를 꾸려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월례회 활성화를 강조했다. 한편 김동욱 직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제23회 신입회장 전영조

제23회동기회는 지난 2월23일

산 및 예산을 승인했다. 김준배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40명 참석, 올해 기별야구대회 우승을 위한 계획안 발표(권수원·김준연)에 이어 이원철 산우회장이 6월 대마도 등반계획을 설명했다.

제26회 신입회장 김태년 뽑아

제26회동기회는 지난 1월26일 오후 7시 법내골 사학재단 연극회관에서 2006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성재일 회장이 주재한 총회는 70명이 참석, 결산인과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임원개선을 통해 신입회장에 김태년 동문(태영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을 선임했다. 김 회장은 정승규 총무(21MMS 대표)를 유임시켰다.

제29회 신입회장 김용식

제29회 동기회는 지난 2월27일 부산 중구 중앙동 향미원에

제 8 회

具權翰=3월30일 부친 별세. 喪柱元=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125 신성미소시티 1201호 孫世一=3월20일 모친 별세. 011-269-0540 李永熙=경기도 광주시 회덕동 441 대주파크빌 102동 1502호 鄭惠根=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88 현대2차아파트 210동 104호

제 9 회

金京喜=재경동창회 고문·(주)용마공영 대표. (사무실 이전)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2-13 대룡포스트타

워2차 211호(우:152-050), 02-2082-0480~7·(Fax)02-2082-0488

金昌局=지난해 12월18일 서울 홀리데이호텔 아들 래욱군 결혼. (주택 이사)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 아시아선수촌 119동 506호.

文正德=지난해 11월26일 별세 朴憲榮=2월13일 모친 별세 成百奎=부일체육관. (체육관 이전)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595-21번지. 051-809-5697

劉鳳萬=3월11일 서울 웨딩프라자에서 막내딸 소영양 결혼 李升雨=(주택 이사)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렉셀아파트

어디서 무엇을

411동 804호 鄭商哲=1월9일 별세 崔鉉五=(주택 이사)경남 밀양시 내이동 708-4 영생아파트 사동 109호

제 10 회

李允洙=5월5일 서울 천주교 압구정1동 성당에서 차남 한상군 결혼 李憲珍=1월1일 대야신문(지역신문) 회장 취임.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482-7번지.055-934-0934·(Fax)055-934-0932 黃鉦玉=2월5일 미국 플로리다주 펜서콜라에서 "사랑의 교회" 창립. JOI HAWNG, 2355 West Misigan Avenew c-apt 28 Pensacola Florida 32526 U.S.A. (Tel)850-944-0592

제 11 회

金炳基=본부동창회 자문위원. 1월7일 부산 해운대 웨스턴조선비치호텔 대연회실에서 아들 도완군 결혼. 011-9485-0786 金鏞正=1월7일 부산 코모도호텔 총무실에서 딸 은정양 결혼. 051-246-3137

朴章淳=2월19일 인천 만수동 아름다운뷔페 웨딩홀에서 딸 선영양 결혼. 011-9315-3035 李在珍=2월24일 모친 별세. 010-3139-3451 秋光善=지난해 12월19일 부산호텔에서 차남 주진군 결혼. 051-416-6910 河容武=지난해 11월19일 부산 목화예식장 3층에서 아들 희성군 결혼. 019-534-3904

제 13 회

金于淵=3월14일 장모 별세. 019-261-1438 朴瑞龍=3월16일 별세. 031-716-1066 邊允植=2월18일 서울 여의

노벨상 가능 '국가 석학 11명' 중에

장기주(26회) 노벨상 수상 가능성 높아



'한국인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

고체물리학분야의 석학 장기주

동문(26회)·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교수·사진)은 '05국가석학 11명'에 선정(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서 연초 공동 발표)된 이래 연구실의 불이 꺼진 때보다 더 오래 켜져 있다. 이미 학계로부터 '탁월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나노과학 분야의 연구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 장 동분은 이번에 국가석학으로 뽑힘에 따라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향후 5년간 매년 2억 원씩, 최장 20년간 모두 20억 원을 받게 된다.

국가석학 지원사업은 노벨상 수상 가능성이 있는 과학·공학 분야의 우수한 학자를 선정,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장 동분은 고체물리과학분야에서 19여 편의 SCI급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미국 UC버클리대 박사과정 중 '초전도체의 전자-포논 상호 효과와 전자 사이의 반발력을 제일원리 전자구조 계산을 통해 계산하는 방법'을 최초로 발표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반도체·탄소나노튜브·나노선 등 고체물질의 물리적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등 나노과학분야에서도 연구업적이 뛰어나 촉망을 받고 있다.

호주통 변호사로 인기상종가

김병욱(29회) 국내 유일 한국·호주 자격증 보유



한국인 호주 변호사 자격 취득 제1호... 국내 유일 한국-호주 변호사 자격증

동시 소지자.' 법무법인 율촌에 스카우트된 변호사 김병욱 동문(29회)이 요즘 인기상종가를 치고 있다. 지난해 10월 16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김 동문은 최근 정부와 국내 기업들로부터 호주 관련 문의 쇄도에 힘써온 채 '국내 최고의 호주전문가'로 대접받고 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동문의 호주 변호사 자격 취득과정은 남다르다. 1988년 국제업무분야 경험을 쌓기 위해 미국 유학을 떠나기로 했으나 유학 자격시험 일정이 맞질 않아 호주를 선택한 것. 지난 1985년 사법연수원(15기)을 수료한 뒤 김장리 법률사무소에서 3년간 재임한 후의 일이다. 그는 낮에는 호주 로펌에서 외국변호사

로 일하고 밤에 공부할 틈에 지난 1999년 스프리드 로스쿨 수료와 동시에 뉴사우스웨일스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인 부인이 호주의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몇 해 동안 호주에서 진료 경력을 쌓았다고 했기 때문에 귀국이 지연됐다.

대신 '두드러진 보너스'가 굴러들어왔다. 놀라웠게 되자 한국 기업들의 호주 관련 법률서비스를 독점하다시피 했다.

김 동문은 귀국해서도 호주 관련 법률서비스 수요가 넘쳤고, 최근에는 호주에서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먼저 요청해 정부와 국내 기업들로부터 호주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김 동문은 "나라에서 한·호 FTA협상 때 부른다면 언제든 지 뛰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정부는 호주의와 FTA 때 자원개발우선권을 요구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김선호 등 3명에 용마장학금 수여

경남중63·경남고60회 졸업식

경남중·경남고 2006학년도 졸업식이 각각 학교별로 열렸다.

경남고는 지난 2월20일 오전 11시 학교 체육관에서 권명미 교장 주재로 제60회 졸업식(사진)을 거행, 새로운 용마 390명을 배출했다(졸업자 총 2만9천383명).

이날 졸업식은 교직원·재학생·학부모와 인강태 본부회장(11회·대전조선 대표)을 비롯한 다수 임원·동문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권명미 교장은 학업 최우수상(인문계열-김동환·자연계열-김형분)을 비롯해 공로·모범·교과우수·3년개근·3년정근 등의 대내상을 수여하였다.

모교에서 지금은



인강태 본부 회장은 김선호 최성우 이준수 군 등 3명에게 용마장학금을 수여했다. 김선호 군은 동창회장상도 받았다.

이날 김영주 황태원 군은 최성호(17회·피부비뇨기과전문의) 장학금을, 박희정군은 학교운영위원장상을, 정희철 변형준군은 경문회장상을 받았다.

동창회장상 김병준 수상

경남중은 같은 달 21일 오전 10시30분 학교 체육관에서 김철근

교장(16회) 주재로 제63회 졸업식을 거행, 364명의 용마를 새로 배출했다(졸업자 총 3만1,951명).

이날 졸업식은 교직원·재학생·학부모와 본부동창회 임원·동문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철근 교장은 황우석 군(종합최우수상) 등 257명에게 대내상을 수여했다. 동창회장상은 김병준, 학교운영위원장상은 황우석, 경문회장상은 정 일 군 등 5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이 대외상을 받았다.

'필승기원' 200만원 쾌척

전남·하동·남해 동문들 모교 야구부 격려



경남고 야구부 선수들이 올해 전국대회 석권을 위해 명연연을 하고 있다.

하영제(27회) 남해군수 합동 단합회 주관

제1회 남해군수기 우수고교 초청 야구대회(2월1~9일)에 출전했던 경남고 야구부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각계 동문들이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같은 달 2일 오후 6시 남해 장항동 뒷집. 남해군수인 하영제 동문

(27회)이 배운 '필승기원단합회'는 전남지역동창회(회장 박정근·21회) 동문들과 하동·남해지역 동문들이 모금한 격려금 200만 원 전달식이 결집어져 한층 뜨거운 열기에 휩싸였다.

이날 하 동문이 선수들을 위해 100여 만원을 들여 마련한 단합회 자리에는 권명미 교장을 비롯한 관계부장과 이종은 감독 등 고

청스텝 및 선수 전원, 이길상(6회) 경야회 고문, 하 군수, 김병화(35회) 전남지역동창회 총무 등이 참석했다. 이길상 동문은 전지훈련 중 밀감 2상자와 녹차 1상자를 증정했다.

전남·하동·남해지역 동문들의 성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0만원=최석립(20회)
- △20만원=김재근(11회)
- △10만원=공상기(11회) 정철기(13회) 김 석(18회) 허 규(32회) 예영찬(33회) 김병수(35회)
- △5만원=안중인(11회) 김수철(19회) 이충희 민훈기(이상 22회) 정동화(24회) 박춘규(27회) 송희태 윤형근(이상 29회) 박재백(30회) 김성철(31회) 송호성 이춘용 김병화(이상 35회) 이명식(37회) 이상동(38회) 이상백 김진호(이상 39회)

전지훈련 중 4승1패 전적

한편 이번 대회기간을 틈타 벌인 경남고의 전지훈련 중 경기는 모두 4승1패(△덕수정보고 5-4 △화순고 5-2 △성남고 6-4 △공주고 1-4 △주엽고6-5) 전적을 올렸다.

제37회, 투수에 매달 장학금 지급

대통령배 우승 위해 제33회는 회식 제공

제37회동기회(회장 : 조현철·용마트레이딩 대표)에서는 2년 전부터 경남고 투수인 이상화 군에게 매달 2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급, 훈훈한 동문의 정을 느끼게 하고 있다.

한편 제33회동기회는 지난 3월15일 '06 춘계리그 겸 대통령배야구 예선전에 나서는 경남고 야구부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

한 회식을 마련했다.

이날 오후 7시 부산 중구 부평동 구포집(22회 장영근 동문 운영)에서 열린 회식은 이를 주관한 제33회 측에서 이운조 회장을 비롯해 박상국 고재훈 김법영 김종만 장정석 주기훈 지창근 동문이, 학교 측은 권명미 교장을 위시해 이종운(39회) 감독 등 코칭 스텝과 선수 전원, 경야회 측은 이길상(6회) 고문과 조흥기(22회) 회장 등 임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대통령배 기다려!”

경남고, 전국고교야구 부산대표 출전

모교 경남고(교장 권명미)가 오는 4월17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40회 대통령배 전국 고교야구대회(중앙일보 주관)에 부산대표로 출전하게 되었다.

경남고는 이 대회 부산예선대회 1차전(3.21~25)에서 3승1패, 2차전(4.4~8)에서 3승 등 모두 6승1패를 기록, '야구명문'의 진면목을 과시했다. '왕중왕 등극'을 위해 국내외 용마가족들의 뜨거운 성원이 기대된다.

경남고는 지난 4월4일부터 부산 구덕야구장에서 열린 2차 예선대회에서 개성고를 9-2(7회 콜드게임), 부산고를 6-3, 부경고를 10-0(5회 콜드게임)으로 각각 제압해 1위에 올랐다.

한편 경남고는 앞서 1차 예선대회에서 부산고를 3-2로, 부산공고를 7-5, 부경고를 7-0(7회 콜드게임)으로 따돌림으로써 1위를 차지했다(개성에게 1패).

<제5면에서 받음>

도 국민일보사옥에서 장녀 성아양 결혼. 011-282-3101
 辛龍雄=2월27일 모친 별세. 016-393-9211
 李相雄=3월9일 별세
 故 李暎燮=3월14일 서울 저동 영락교회 선교관에서 차남 기호군 결혼
 李重光=2월7일 모친 별세. 011-229-1011
 鄭昌鉉=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3월10일 정년퇴임
 崔永才=대우버스글로벌(주) 부회장. 3월25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딸 민혜양 결혼. (사무실 이전)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02-번지. 032-680-6604. (Fax)032-680-6630
 許俊錫=1월18일 별세.

제 14 회

金炳徹=(주택 이사)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163-1 태경선샤니아파트 606호. 010-2553-6055
 朴三現=(주택 이사)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 84-4번지 4층. 019-552-9999
 朴憲穆=(주택 이사)부산시 해운대구 좌2동 현대아파트 108동 1601호. 011-877-4516
 襄南淳=3월 (사)고려인삼수출진흥협회 사무국장 취임. 02-6300-2984~5
 卞熙慶=2월14일 모친 별세.
 吳成煥=3월4일 서울 장충동 소피텔앰버서더호텔에서 아들 세욱군 결혼
 尹龍男=2월21일 별세
 李根元=1월16일 별세. 경기도 일산 기독교 공원묘원에 안장
 李秀男=(주택 이사)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롯데캐슬아파트 602동 503호. 018-578-3497
 李永準=광복의료기 대표. 2월11일 모친 별세. 017-525-9405
 李勳一=2월초 (주)부산 OTS 설립(버스·지하철 교통망 연계카드 사업). 051-501-6341~4
 鄭淳=1월12일 장모 별세

趙鍊濟=(주)디엔에코(DN Echo) 설립.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9-22번지. 02-6711-6710

제 15 회

金耕一=2월18일 부산 문화회관 중국장에서 딸 혜린양 「김혜린 귀국 피아노 독주회」를 가짐
 金明培=(휴대폰 변경)010-4880-3606
 金鍾垠=2월4일 부산 롯데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차녀 지혜양 결혼
 李益生=2월4일 모친 별세
 李相道=2월18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차남 진희군 결혼
 李先功=2월18일 부산 해운대 벅스코 웨딩홀에서 장녀 은경양 결혼
 張峯高=2월19일 경남 삼천포 해상관광호텔 예식장에서 장남 수영군 결혼.

제 17 회

姜宇勳=두레친환경농업연구소장
 姜清作=대길포장 대표
 金百壽=2월17일 동아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취득
 金竣淵=동아대 의대 교수. 英 IBC의 보건의학분야 '세계 100대 과학자'에 선정됨
 宋勝久=부산대학교 화공과 교수. 2월2일 인도네시아대학 초빙교수자격으로 출국. University of Indonesia 화공과와 Gadjah Mada 대학에서 한 학기씩 강의. 내년 2월에 귀국
 張義久=(주택 이사)경남 창원시 상남동 103-14번지
 錢 洸=동방명리학연수원장
 全英富=재경동기회 회장·보영ENT 대표이사
 鄭起台=재경산우회 회장·기아자동차 부속병원장. 1월21일 딸 결혼
 許眞豪=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제 18 회

姜永鎬=부산남일중 교장. 051-531-0509
 高萬淑=대성약국 대표. 051-751-6553 · 016-201-

趙慶來=동남아해운. 일본 근무 마치고 본사 근무. 02-311-5945 · 010-7387-1617

제 29 회

尹亨根=전남 여수시 대림1사택 10동 103호. 011-9604-0827
 崔範樹=재경동기회 회장.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빌딩 11층 한국개인신용. (e-mail)parksj@mju.ac.kr

제 32 회

邊榮信=장어마을(바다장어 전문점) 운영. 경남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소재.

어디서 무엇을

9644
 金德根=김덕근내과의원장. 051-305-0550
 金炳旭=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양지연립 라동 207호
 金炳學=부산시 금정구 부곡3동 경남한신아파트 102동 1401호
 金聖洙=부산시 사하구 괴정1동 화신아파트 5동 306호
 金勇基=국제통운 신선대 CY 이사. 051-630-5600
 金正來=부산영남중 교장. 051-265-4336
 朴貴煥=부산시 북구 구포동 유림아파트 109동 105호. 017-584-1264
 朴東午=부산양덕여중교장. 051-341-1193
 裴成國=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대우마리나아파트 110동 201호
 夫昌九=중앙의원장. 051-332-6717
 徐在鳳= M.S.C 대표이사. 055-389-1001
 李大運=호수약국 대표. 051-621-5531
 田炳熙=광혜병원 방사선과 과장. 051-503-2111
 崔元一=고려철강 대표. 051-317-1800
 河榮一=부산부흥고 교사. 051-702-2392

제 19 회

林泰錫=남성해운(주) 전무. 지난해 12월17일 부산 중앙동 대한통운빌딩에서 장녀 지수양 결혼

제 20 회

金斗煥=나라빌 대표. 2월 25일 부산 하모니웨딩에서 아들 정윤군 결혼. 051-803-0770
 金韓元=3월2일 부산연제고 교장으로 영전. 051-864-4806

朴基祥=1월31일 모친 별세. 2월15일 부산 서면 가마메 2호점 개업. 011-9533-0756
 朴炳千=1월17일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딸 윤정양 부부가 귀국독창발표회를 가짐. 010-7537-3766
 李誠福=가마메 남천지점 대표. 1월7일 서울 삼성금융플라자에서 딸 경민양 결혼. 051-625-5303
 任盛春=부산동궁초등 교장 전보. 051-315-8277
 曹秉國=3월2일 부산동주중 교장으로 영전. 051-322-0057
 許圭判=대구지역동창회 회장·삼성산업 회장. 1월 14일 부산 남천성당에서 아들 영웅군 결혼. 011-807-9933

제 21 회

孔琪和=부산고대 교수. 3월4일 장남 결혼. 051-621-2930 · 017-580-2930
 金熙建=1월6일 부인 별세
 金大雄=3월4일 장녀 결혼. 016-255-7946
 朴重健=(주)3차원. 051-621-6311 · 016-544-3435
 徐正源=2월16일 모친 별세. 011-9880-4478
 成樂合=前 서울중구청장. 3월10일 별세
 成良奎=3월23일 모친 별세. 011-201-0252
 申南錫=1월19일 "용마산악회" 산행대장에 선임. 051-583-0553 · 010-8648-8172
 吳巨敦=前 해양수산부 장관. 2월26일 "나는 희망을 노래한다" 출판기념회 개최. 051-741-4157
 玉東眺=3월14일 모친 별세. 017-842-0332
 劉一健=2월25일 장남 결혼. 010-7763-8563
 尹善欽=3월25일 장녀 결혼. 018-308-8610
 李浩哲=4월29일 장녀 결혼. 011-844-5874
 鄭暎天=변호사. 1월19일 "용마산악회" 수석부회장에 선임. 051-783-0041 011-597-0402
 趙?來=4월8일 장남 결혼. 011-312-4441
 崔元鍾=한국허치슨터미날

(주) 대표. 4월22일 장녀 결혼. 051-630-8201 011-9748-5801
 韓璘煥=부산남성여고 교감 승진. 051-741-5571 · 011-865-1427

제 23 회

金珉洙=3월5일 별세
 金相榮=2월19일 부산 벅스코 그랜드홀에서 장녀 결혼
 尹鎰漢=지난해 12월25일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장남 결혼
 李德一=(주)沙浦개발 대표 사장. 밀양에서 택지구획 정리 공사중
 張大翼=부산 강서구청 사회산업국장승진
 鄭相健=부산 좋은강안병원 소아과 과장 재직중

제 25 회

金德佑=(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사무실 이전)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474-80 유원오피스텔 606호. 051-466-5400
 李海龍=123약국 개업. 부산시 서구 아미동1가 22-1 부산대학병원 사거리. 017-566-1061

제 26 회

제26회동기회 사무실
 부산 부산진구 전포2동 607-1 적십자회관 301호. 051-804-2608

제 28 회

金大植=한동대 경영경제학 부장 부임. 054-260-1416 · 017-257-4680
 金洙英=2월25일 작은신부(아동복상설할인매장) 개업. 경남 함안군 가야읍 문화의 거리에 소재. 055-583-1533 · 011-581-9053
 金正裕=2월13일 서울이비인후과 개업(47회 김창근 후배와 공동). 경남 김해시 김해시 내동 중앙사거리 신한플라자 3층. 055-

321-5536 019-9778-1777
 朴榮濟=2월 삼성테크원 중앙연구소 상무으로 부임. 031-730-8801 016-658-3296
 襄明俊=2월초 대한항공 인천화물 운송지점 관리그룹장으로 전보. 032-742-5690 · 019-554-5029
 尹一熹=경북대 교수. 서울대 의대에 차녀 수지양 합격. 019-556-5921
 李雄煥=2월 국제신문 전무로 부임
 張珩昌=87년 직선제개헌 촉구 교수시국선언에 참여. 89년 해직되었다가 17년 만에 독문과 교수로 복직. 011-863-7847

趙慶來=동남아해운. 일본 근무 마치고 본사 근무. 02-311-5945 · 010-7387-1617

제 29 회

尹亨根=전남 여수시 대림1사택 10동 103호. 011-9604-0827
 崔範樹=재경동기회 회장.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빌딩 11층 한국개인신용. (e-mail)parksj@mju.ac.kr

제 32 회

邊榮信=장어마을(바다장어 전문점) 운영. 경남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소재.

어디서 무엇을

055-632-9289 · 019-502-6992
 安平鎬=백송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경남 밀양시 내이동 소재. 055-356-1822 · 011-9531-9152
 彭炫俊=GM캐딜락·사브서울 강남지점장. 02-554-2006 · 011-867-9963

제 33 회

金泰均=지난해 12월1일 대한통운 노조 부산지부장으로 취임

제 35 회

宋虎星=전남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576-73번지 011-848-7666
 蔡仁錫=하파그로이드 재정총무. 1월에 부장진급

제 37 회

朴純佑=쿠쿠 성광전자. 중국 청도 근무 마치고 본사 근무

제 41 회

金燦源=경찰청 경감. 2월16일 중국 청도총영사관 영사로 부임.

울산 현대중공업회 회장단

△회 장=申台湜(25회) 052-230-1583
 △부회장=홍순하(26회) 052-230-7801
 △총 무=崔紀勳(29회) 052-230-3931 019-471-5237

